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

-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을 중심으로 -

류 중 렬**

차 례

1. 서론
2.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의 성격과 이주홍의 작품
3. 당대의 세대풍속-「대지(大地)의 아들」(1940.2.), 「여성학교(女性學校)」(1940.5.), 「걱정백태(百態)」(1940.10.)
4. 전통과 습속 논의의 실상-「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꼭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1943.6.)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향파 이주홍이 일제 말기 『家庭の友』와 『半島の光』 두 잡지에 발표한 만화 작품 중에서 만문만화를 최초로 소개하고, 그 만문만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이주홍의 대일 협력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첫째, 『家庭の友』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12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서 월간으로 펴낸 기관지로서, 1941년 3월까지 통권 41호가 발간되다가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1941년 4월부터, 『半島の光』으로 제호를 바꾸어 해방 전까지 월간으로 간행된 기관지 겸 종합잡지이다. 이 두 잡지는 일본인 소구홍과 청수정일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화상회인 채소와 매일신보사 인쇄부에서 인쇄하였다. 당시에는 더물게 한글로 주로 인쇄되었으나 권두언 등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半島の光』은 일문판인 ‘화문판’과 한글판인 ‘선문판’으로 나누어 발간되었다. 이 잡지들의 내용은 처음에는 주로 농촌 가정생활에 필요한 소식들이었으나, 1930년대 말기부터는 대일협력적인 시국적 내용이 중심이 된 전형적인 친일잡지이다. 적지않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친일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주홍도 이 두 잡지에 40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만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글에서는 만화 중에서 넓은 의미에서 당대의 세태 풍속을 다루고 있는 6편의 만문만화만을 검토하였다.

둘째, 「대지(大地)의 아들」(1940.2.), 「여성학교(女性學校)」(1940.5.), 「걱정백태(百態)」(1940.10.)는 당대의 세태풍속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지(大地)의 아들」은 당시 황금광 시대의 풍속도를 풍자하면서 대지의 아들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학교(女性學校)」는 당시 여성들의 몸가짐과 행동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여성학교’란 제목으로, 당시의 여성풍속도를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걱정 백태(百態)」는 당시의 가정과 사회 구성원이 걱정하는 내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곶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1943.6.) 등은 대중매체인 만화를 통해 조선의 지켜야 할 전통과 고쳐야 할 습속을 대중에게 알기쉽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가가 만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과 습속의 구체적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쉽지 않지만, ‘버려야 할

습속'이나 '고쳐야 할 습속'은 일제의 전시국민생활 체제 확립이나 생산 신체제에 확립에 의거한 내용들에 일정 부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만문만화는 『家庭の友』 1939년 9월호(통권 24호)에 실린 「고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엽서회신)에 실린 내용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 이 글들이 향파의 만문만화의 직접적인 저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향파가 이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제어 : 『家庭の友』, 『半島の光』,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대일협력

1. 서론

향파 이주홍이 일제 말기에 주로 작품을 발표한 매체는 『家庭の友』와 『半島の光』, 그리고 『동양지광』이었다. 그는 『동양지광』에는 일문(日文)으로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선문판·한글판)에는 국문으로 쓴 작품을 발표하였다. 향파는 1940년 2월 『家庭の友』에 만문만화 「대지(大地)의 아들」을 시작으로, 1944년 1월 『半島の光』에 만문만화 「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을 발표하기까지 40여회에 걸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 만화 작품이다. 이 글은 이 두 잡지에 발표한 만화 작품 중에서 만문만화를 최초로 소개하고, 그 만문만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이주홍의 만문만화는 『동양지광』에 수록된 「학생풍속시평(學生風俗時評)」(1943.6)을 제외하면 이 두 잡지에만 모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이주홍의 대일협력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만문만화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보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두 잡지에 실린 작품에 대한 연구는 엄희경, 오진환, 류종

털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엄희경은 「이주홍 작품 연표」에서 처음으로 만화 작품에 대해 연표를 정리하였고,¹⁾ 오진환은 만화가로서의 이주홍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주홍 연표에 1941년과 1942년의 활동이 빠져 있다고 하면서, 『동아일보』와 『半島の光』에 실린 이주홍의 만화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半島の光』에 실린 이주홍의 만화는 ‘이주홍의 감춰졌던 친일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半島の光』에 실린 연재만화 「즐거운 박첨지」와 「명랑한 김산일가」의 친일 양상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²⁾ 그런데 엄희경이 작성한 연표에는 누락된 사항이 제법 있고, 오진환이 발굴했다는 자료는 이미 엄희경에 의해 정리되어진 것이었고, 만화 「즐거운 박첨지」는 『家庭の友』 1940년 11월에서 1941년 3월까지 연재되다가 『半島の光』으로 이어져 계속 발표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두 만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다. 류종렬은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수록된 이주홍의 작품 목록을 새롭게 정리하고,³⁾ 『半島の光』 1941년 11월호에 수록된 향파의 기행보고문 「산지대농촌현지보고(山地帶農村現地報告)-비경(秘境)에 사는 사람들-갑산(甲山), 풍산(豊山)을 다녀와서-」와 그의 소설 「내 산아」와 동화 「메아리」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검토하는 가운데서, 「산지대농촌현지보고(山地帶農村現地報告)-비경(秘境)에 사는 사람들-갑산(甲山), 풍산(豊山)을 다녀와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수록된 이주

- 1) 엄희경, 「이주홍 작품 연표」, 김인환·정호웅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논문집』, 민음사, 2006, 110-136쪽.
- 2) 오진환, 「이주홍 연표의 비어있는 기간을 찾아서」, 『어린이와 문학』, 2011, 10. 원종찬 외 지음,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엮음. 『한국아동문학사의 재발견』, 청동거울, 2015. 361-371쪽.
- 3)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2)」, 『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2014. 202쪽.
- 4) 류종렬, 「이주홍 작품의 화진민과 메아리 모티프의 변모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69집, 한국문학회, 2016. 229-259쪽.

홍의 작품 연구는, 두 잡지에 실린 작품 목록을 정리한 것, 『半島の光』에 실린 연재만화 「즐거운 박첨지」와 「명랑한 김산일가」의 친일 양상을 연구한 것, 『半島の光』 1941년 11월호에 수록된 기행보고문 「산지대농촌 현지보고(山地帶農村現地報告)-비경(秘境)에 사는 사람들-갑산(甲山), 풍산(豊山)을 다녀와서-」의 연구 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만문만화들은 지금까지 목록만 제시되었을 뿐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문만화들은 일제 말기 이주홍의 현실인식과 그가 어떻게 대일협력의 길로 나아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이주홍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다.

만문만화는 1920~30년대 주로 신문과 잡지 등의 지면에 발표되었는데, 한 컷짜리 만화에 짧은 줄글이 결합된 형태를 하고 있다. 여느 만화에 말풍선이 있는 것과는 달리 만문만화는 서술문이 있어서 의미를 전달한다. 이 말풍선의 유무가 보통 만화와 만문만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문이라는 형식은 인물의 심경과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풍선보다는, 아무래도 덜 직접적이고 풍자적인 문체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쩌면 만문만화가 발표되던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말미암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일제의 검열과 사상 탄압이 기승을 떨치던 당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회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⁵⁾

만문 만화는 만화와 문학의 경계에 있는 다시 말하면 글과 그림이 결합된 혼성 장르이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결합하여 각각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이 상호결합된 유기적 전체로서 제3의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그림이 지닌 대상에 지시적 성격과 글의 개념적·초감성적 성격이 각각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언어로 상호교환되는 독특한 형태로 만문 만화로 구성되어 있다. 글이 갖는 추상성과 그림이 갖고 있는 구상성이 상호침투하면서, 말하기와 보

5) 신명직, 『모던 뽀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6-7쪽.

여주기가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를 만문 만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

만문 만화의 기원은 일본의 ‘만화만문’에 두고 있다. 만화만문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오카모토 잇페이라는 작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오카모토 잇페이는 1913년 처음으로 만화만문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사상 탄압이 거세게 일고 있던 때였다. 1910년의 메이지천황 암살기도 사건 이후 수많은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가 검거되고 사회주의자 12명이 처형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대역사건’이라 한다. 탄압의 광풍이 몰아치자 만화잡지의 휴폐간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만화만문이 탄생한 것이다. “예리하고 풍자적이기는 하지만 심하게 불쾌하지 않고, 잔혹하지 않”은 만화만문은 식민지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직설적이고 본격적인 사회비판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910년대와 20년대에 걸쳐 요미우리신문의 곤도 코이치와 고단사 잡지에 주로 기고했던 요시오카 등에 의해 만화만문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다.

1930년대의 식민지 조선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안석영이 조선 일보의 학예부장을 하던 1930년대에는 만화만문이 신춘문예의 한 부문으로 모집 공고되기도 할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당시의 모집 공고에는 “1930년을 회고하거나 1931년의 전망이거나 시사, 시대, 풍조를 소재로 하되, 글은 1행 14자 50행 이내”라는 만화만문의 형식이 명시되어, 단편소설·시·학생문예·소년문예와 함께 문예의 한 장르로 규정되어 있다.”⁷⁾

신명직에 의하면, 1924년이 지나면서 사회비판적인 만화를 신문 잡지에 실을 수가 없게 되자 1927년을 전후하여 만문만화가 하나의 장르로서 새롭게 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안석영을 필두로 하여 최영수, 김규택, 임홍은, 이주홍 등의 작가들이 1930년대 신문과 잡지에 여러 편의 만

6) 신명직, 위의 책, 323쪽.

7) 신명직, 위의 책, 9-10쪽

문만화를 발표했는데, 1930년대의 신문 잡지에서 소위 시사만화는 거의 사라지고, 만문만화가 주된 장르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시대 상황이 시사만화를 허락하지 않자, 1930년대의 도시풍경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만문만화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⁸⁾ 그러나 『家庭の友』와 『半島の光』, 그리고 『동양지광』을 통해 볼 때, 1940년대에도 많지는 않지만 시사만화와 만문만화가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이 시국적인 것으로 대일 협력적인 내용이다. 이주홍의 만화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만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와 익살이라는 특징에 가려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시선의 정치’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사만화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재미있게’ 또는 ‘알기 쉽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가 공유한 상징체계와 표현양식을 통해 특정 경향의 ‘규율’을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정치 권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화매체의 생략과 과장이라는 형식 속에는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성이 잠재되어 있다.⁹⁾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발표된 작품들이 모두 시사풍자만화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은 만화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이미 일제 말기 『동양지광』에 발표된 이주홍의 일문(日文) 작품들을 3편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¹⁰⁾ 이 글은 앞의 논문들의 연장선 상에서 연구된 것이다. 앞의 논문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주홍의 일제

8) 신명직, 위의 책, 8-9쪽.

9) 한상일·한정선,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일조각, 2006, 5쪽. 필자는 이주홍의 일문만화를 연구하면서 이 책의 연구 방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10)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학회, 2013. 477-512쪽.;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2)」, 『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2014. 179-205쪽.;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만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8집, 한중인문학회, 2015. 127-151쪽.

말기 작품 연구는 친일 잡지인 『동양지광』에 발표된 이주홍의 작품들과, 또 다른 친일 잡지인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발표된 작품들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이주홍의 대일협력의 과정과 그 양상을 작가론적 관점에서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2.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의 성격과 이주홍의 작품

『家庭之友』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12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월간으로 펴낸 기관지로서, 『半島の光』의 전신이다. 제1호의 표지에 ‘가정문고개제(家庭文庫改題)’라고 적혀있어 기존의 ‘가정문고’가 『家庭之友』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家庭之友』라는 이름으로, 1938년 6월호와 7월호는 『家庭의友』로, 1938년 8월부터는 『家庭の友』로 바뀌어 1941년 3월까지 통권 41호가 발간되었다. 일본인 ‘소구홍’(이후 청수정일)이라는 자가 편집 겸 발행인으로 되어있으며 대화상회인쇄소(이후 매일신보사인쇄부)에서 인쇄한 것으로 자료에는 남아있다. 한글로 주로 인쇄되었으나 권두언 등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잡지의 내용은 농촌가정생활에 필요한 새소식이나 새지식이 중심이었으나, 일반 상식이나 농촌부인의 육아, 요리 등 교양관련 강좌, 흥미있는 이야기거리,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만화 등 다양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1930년대 말기에 오면 대일협력적인 시국적 내용이 점차 많아진다. 문학 작품으로는 심형진, 여인빈, 김홍만, 이영철, 이정호, 이철성, 한인택, 황순진, 허풍, 한상진, 이기영, 한죽송, 박태원, 홍난파, 이하운, 노자영, 엄홍섭, 박계주, 장정심, 차상찬, 임학수, 김진섭, 유진오, 이서구, 이석훈, 방인근, 김태오, 정인섭, 전영택, 이해문, 이현구, 김문집, 김억, 이효석, 이광수, 안석영, 이선희, 이주홍, 장덕조, 안희남, 최정희, 이병기, 박노갑, 박종화, 임학수, 박영희, 김동환 등의 동화, 소년소설, 소설, 시,

수필 등이 실려 있다. 그리고 김소운 편 의 민요와 동요, 이승철, 이주홍, 최영수, 최일송, 김상수의 만화 등도 실려 있다.¹¹⁾

『家庭の友』는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1941년 4월부터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펴낸 또다른 기관지 『금융신문』과 함께 『半島の光』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잡지로 합쳐져서 간행된다. 『半島の光』은 일문판, 곧 ‘화문판’과 한글판, 곧 ‘선문판’으로 나누어 발간되었는데, 편집 겸 발행인은 청수정일이고 매일신보사 인쇄부에서 인쇄한 것으로 자료에 남아 있다. 이른바 국어상용으로 한글 쓰임이 막히고, 게다가 극심한 용지 부족으로 시달렸던 시기에 한글판은 4·6배판 크기로 10만부나 펴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문』과 함께 한글로 광복 바로 앞까지 꾸준히 나왔다. 그 비중과 영향력이 엄청났던 매체가 『半島の光』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어느 곳 없이 침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친일 종합지로서, 『半島の光』이 그 기사 내용의 대부분을 일제의 무모한 침략전쟁의 승리와 그를 위해 이른바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부추기고, ‘성전’의 연전연승을 거짓으로 꾸며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총후’ 농민의 수탈을 피하기 위한 선전·선동과 그 방법에 한 길을 걸었던 셈이다. 그 편집 일은 조선인으로서는 드물게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본부 참사’자리에 까지 올라갔던 박원식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 작품도 비중 있게 실렸다. 소설, 야담 동요, 수필, 번역시, 아동물들이 달마다 붙박이로 올랐다. 다양한 독자 계층을 아울러 고려한 편이었다.

문학인으로서는 최정희, 채만식, 이원수, 이석훈, 김 억, 김동인, 정인택, 안희남, 주요한, 김동환, 이하운, 이현구, 박계주, 이기영, 이광수, 정비석, 장혁주, 차상찬이 빠지지 않았다. 비중이 컸던 부왜매체였던 만큼

11) 『家庭之友』의 목차의 내용은 다음 책에 정리되어 있다. 이화영 외 5인,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 9』, 국학자료원, 2004, 231-279쪽에 수록되어 있다.

오늘날 부왜문인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문인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예외 없이 그 이름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이주홍도 이 두 잡지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작품 뿐만 아니라 이주홍이 이름을 올린 좌담회 등도 모두 포함시켰다.¹³⁾

①	대지(大地)의 아들	家庭の友	1940.2	만문만화	
②	이설(異說)춘향전(春香傳)	家庭の友	1940.5.	만문만화	
③	여성학교(女性學校)	家庭の友	1940.9.	만문만화	
④	걱정 백태(百態)	家庭の友	1940.10	만문만화	
⑤	즐거운 박(朴)침지	家庭の友	1940.11.	연재만화	15칸만화
⑥	즐거운 박(朴)침지	家庭の友	1940.12	연재만화	15칸만화
⑦	즐거운 박(朴)침지	家庭の友	1941.1.	연재만화	15칸만화
⑧	즐거운 박(朴)침지	家庭の友	1941.2.	연재만화	15칸만화
⑨	즐거운 박(朴)침지	家庭の友	1941.3.	연재만화	15칸만화
⑩	즐거운 박(朴)침지	半島の光	1941.4.	연재만화	15칸만화
⑪	즐거운 박(朴)침지	半島の光	1941.5.	연재만화	15칸만화
⑫	즐거운 박(朴)침지	半島の光	1941.6.	연재만화	15칸만화
⑬	즐거운 박(朴)침지	半島の光	1941.7.	연재만화	15칸만화
⑭	즐거운 박(朴)침지	半島の光	1941.8.	연재만화	15칸만화
⑮	정만서	半島の光	1941.9.	신정언 술, 이주홍 화	
⑯	정만서	半島の光	1941.10.	신정언 술, 이주홍 화	
⑰	산지대농촌현지보고 (山地帶農村現地報告) -비경(秘境)에 사는 사람들 -갑산(甲山), 풍산(豊山)을 다녀 와서-	半島の光	1941.11.	기행보고문(수필)	
⑱	정만서	半島の光	1941.12.	신정언 술, 이주홍 화	

12)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169-170쪽.

13) 이 목록은 필자가 앞의 논문(2014)에서 정리한 것에다 염희경이 「이주홍 작품 연표」에서 정리한 29번 작품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염희경의 연표에는 “1942년 2월 『半島の光』에 실린 그림, 일휴화상 강담(2회), 유추강 저, 이주홍 그림”(118쪽)은 잘못된 것이다. ‘이주홍’그림이 아니라 ‘김승만(金承萬)’그림이다. 그리고 “1941년 11월 『半島の光』에 실린 그림, 비경에 사는 사람들”(117쪽)은 이주홍의 기행보고문이고 이에 덧붙인 삽화도 이주홍이 그렸다.

①9	농촌현지보고(農村現地報告) 좌담회(座談會), 문화인(文化人)의 눈에 빛친 농촌(農村)과 금융조합(金融組合)	半島の光	1942.1.	출석자(出席者) 소설가 채만식 평론가 인정식 만화가 이주홍 본회측(本會側) 보급과 장 清水(?) 外 기자.
②0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1.	연재만화 10칸만화
②1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2.	연재만화 10칸만화
②2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3.	연재만화 10칸만화
②3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4.	연재만화 10칸만화
②4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5.	연재만화 10칸만화
②5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6.	연재만화 10칸만화
②6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7.	연재만화 10칸만화
②7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8.	연재만화 10칸만화
②8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9.	연재만화 10칸만화
②9	북관농가(北關農家):비화(扉畵)	半島の光	1942.10.	비화
③0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10.	연재만화 10칸만화
③1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11.	연재만화 10칸만화
③2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半島の光	1942.12.	연재만화 10칸만화
③3	정초(正初)의 우습판, 유·모어 야사(野史), 새벽에 도라온 중	半島の光	1943.1.	문·화 (文畵)
③4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	半島の光	1943.3.	만문만화
③5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	半島の光	1943.4.	만문만화
③6	꼭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말 전통(傳統)	半島の光	1943.6.	만문만화
③7	시험적발(試驗摘發)	半島の光	1943.7.	만문만화
③8	적성추방(敵性追放)	半島の光	1943.11.	만문만화
③9	괴물퇴치(怪物退治)	半島の光	1943.11.	6칸 만화
④0	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	半島の光	1944.1.	만문만화

향파의 작품은 모두 40편으로, 1940년 2월부터 1944년 1월까지 계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만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③ ④ 만화는 당시의 세대풍속 중 금광풍속도, 여성풍속도, 가정과 사회풍속도 등을, ② 만화에서는 고전의 패러디를 통해 당시의 세대풍속을, ①7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일협력적인 기행보고문이며, ③4 ③5 ③6 만화는 당시에

우리 민족이 간직해야 할 전통과 버리거나 고쳐야 할 습속을, ③⑦ ③⑧ ③⑨ ④⑩ 만화는 시국적인 내용을 담은 대일협력적인 것이다.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는 연재만화로, 시국적인 내용을 담은 대일협력적인 것이다. ②① ②② ②③ ②④ ②⑤ ②⑥ ②⑦ ②⑧ ③① ③② 역시 연재만화로, 시국적인 내용을 담은 대일협력적인 것이다. ⑮ ⑯ ⑰는 신정언이 만문을 쓰고, 이주홍이 그림을 그린 만문만화다. ⑲는 북관지방 농가의 삽화로 추정된다. ⑱는 1941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 잡지에 연재된 ‘농촌현지보고’의 좌담회 참석 기록으로 그의 직접적인 발언 내용을 살펴볼 좋은 자료인데, 영인상태가 좋지않아 살펴볼 수 없었다. 이주홍이 만화가로 적혀 있다. 이 기획물은 일제의 국민총력운동의 하나로서 농산촌생산보국운동의 실천을 위한 것으로, 좌담회를 포함하여 10회 연재되었다. 1,2회에서는 잡지사의 기자가 내용을 집필하고, 3회부터는 박태원, 안희남, 김남천, 채만식, 이주홍, 인정식, 김성철 등 많은 작가들과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각 지역에 대한 현지보고문이란 글을 쓰게 된 것이다.¹⁴⁾ ③③은 유모어 야사인데, 글 끝에 “『대동야승』의 「용재총화」에서”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다.

이들 중에 ⑰의 수필에 해당되는 기행보고문과 ⑱의 좌담회 참석 기록과 ③③의 유모어 야사, 그리고 ⑮ ⑯ ⑰의 삽화와 ⑲의 비화를 빼면 모두가 만화 작품이다. 이들 중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는, ① ③ ④, ②, ③④ ③⑤ ③⑥, ③⑦ ③⑧ ③⑨ ④⑩ 등의 만문만화들과,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②① ②② ②③ ②④ ②⑤ ②⑥ ②⑦ ②⑧ ③① ③② 등의 연재만화와, ⑰의 기행보고문이다. 나머지 ⑮ ⑯ ⑰와 ⑲, ③③ 등의 작품은 삽화 비화이거나 야사이므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⑱ ③⑨ ④⑩ 등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영인상태가 좋지 않아 검토할 수 없었고, ⑰은 서론에서 밝힌 바처럼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이미 검토하였기에 다루지 않는다.

14) 류종렬, 앞의 논문(2016), 235-24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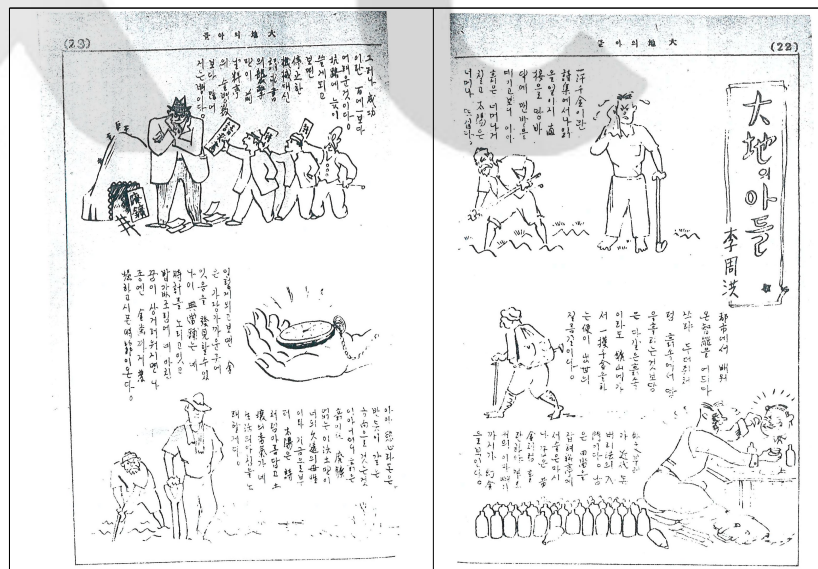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 두 잡지에 실린 40편의 작품 중에서 만문만화들과 연재 만화들만이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수록된, 넓은 의미에서 당대의 세태풍속을 다루고 있는 「대지(大地)의 아들」(1940.2.), 「여성학교(女性學校)」(1940.5.), 「걱정백태(百態)」(1940.10.) 그리고 「버리지 못할 전통(伝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伝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긋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伝統)」(1943.6.) 등 6편의 만문만화들을 먼저 검토하고, 고전을 패러디한 「이설 춘향전」(1940.5.)과 작가의 대일 협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적성추방(敵性追放)」(1943. 11.) 등 3편과 연재만화인 「즐거운 박(朴)침지」와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는 원고를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당대의 세태풍속 「대지(大地)의 아들」(1940.2.), 「여성학교(女性學校)」(1940.5.), 「걱정백태(百態)」(1940.10.)

「대지(大地)의 아들」(1940.2.)은 6컷의 만문만화로, 1930년대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조선에 만연한 금광 열풍의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만문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IV “일한천금(一汗千金)이란 시집(詩集)에서나 입을 일이지 직접(直接)으로 땅바닥에 맨발을 대이고 보니 아아 흙은 너머나 거칠고 태양(太陽)은 너머나 뜨겁다./도시(都市)에서 배워 온 지능(知能)을 어딴다 쓰랴 두더지처럼 흙속에서 땀을 흘리는 것 보담은 다같은 흙 속이라도 광산(鑛山)에 가서 일확천금(一攫千金)을 하는 편(便)이 출세의 질름길이다./외교(外交)부터가 근대(近代) 돈버리 법

(法)의 입문(入門)이다. 남은 전답(田畓)을 잡혀 요정(料亭)에서 술은 마시나 꿈은 황금(黃金)처럼 혼란하야 저의 이마빼기까지가 환금(幻金)을 보인다./그러나 성공(成功)이란 백(百)에 일(一)보다 어려운 것이다. 갱로(坑路)에 높이 쓸게 되고 보면 정지(停止)한 기계(機械)대신 청구서(請求書)의 반격(反擊)만이 전(前)날 요정(料亭)의 술병 수(數)보다 많아지는 법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금(金)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발견(發見)할 수 있나! 전당포(典當鋪)는 네 시계(時計)를 노리고 잇고 밥값 조림에 네 아침 꿈이 상거리워지면 나중엔 금치(金齒)까지 발치하고 시픈 시절(時節)이 온다./아아 욕심(慾心)과 돈은 반듯이 같은 방향(方向)을 걷는 것이 아니어니 흙은 흙이다. 폐광(廢鑛)없는 이 옥토(沃土)만이 너의 구원(久遠)의 모성(母性)이라 지금으로부터 태양(太陽)은 시(詩)처럼 아름답고 토양(土壤)의 향기(香氣)가 네 생활(生活)의 아침을 노래할 제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금광 열풍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는 앞시대와 달리 일제의 식민통치가 노골화되고 더욱 극에 달한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일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고조되기 시작한 민족해방운동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고도의 기만적인 정책인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였으나,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초에 걸쳐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에 직면하자,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 침략정책을 감행하게 되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 많은 전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우리나라를 그들의 병참기지로 만들면서 군수품 조달을 위한 금광개발에 주력하였다. 특히 산금장려정책을 펴면서 전국이 금광 개발 열풍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자 농민에서부터 지식인 계급에 이르기까지 금광에 대한 열기는 ‘황금광시대(黃金狂時代)’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1930년대의 새로운 풍속도가 되기에 이른다. 금광열이 너무나 가열된 나머지 금광 하지 않는 사람을 미친놈 취급할 지경이었으니, 한반도 전역을 황금빛 꿈으로 물들게 했던 이 시기의 금광 열풍은 1930년을 전후로 시작되어서 태평양전쟁 직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이 만문만화는 이러한 금광 열풍을 풍자하고 있다. 일한천금이란 시집에서나 있는 일이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흙도 거칠고 태양도 뜨거워 너무도 힘든 것이니 같은 흙이라도 광산에 가서 도시에서 배워온 지능을 써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남은 전답을 잡혀 요정에서 술을 마시나 꿈은 황금처럼 혼란하여 자신의 이마가 황금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광 투기는 성공하기 어려워 요정의 술값 청구서가 술병의 수보다 많아진다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금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는다고 한다. 즉 전당포가 자신의 시계를 노리고 밥값 독촉에 나중에는 발치까지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그

15) 류종렬, 일제 강점기의 금 모티프 소설 연구(1), 『가족사 연대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257쪽.;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5. 20쪽, 21쪽.

러므로 금광 투기를 통한 일화천금의 욕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폐광없는 옥토만이 구원의 모성이라고 하면서, 대지의 아들로 땀흘려 일하면 태양은 시처럼 아름답고 땅의 향기가 내 생활의 아침을 노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지(大地)의 아들」은 당시 황금광 시대의 풍속도를 풍자하면서 대지의 아들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학교(女性學校)」(1940.9.)는 4컷으로 되어있는 만문만화로써, 4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표정(表情)을 잘 단속한다는 것은

곳 미(美)를 그만큼 연장(延長)한다는 말과 같다. 조금이라도 방심을 한다면 곳 그 바탕이 드러나는 법이니 일테면 만사를 다 잊고서 낮잠이라도 잘 때의 그 얼굴을 좀 보라. 천사(天使)는 커녕 너머나 너머나? 한 본성(本性)이 아니냐./ (二) 신여성도 그러코 구여성도 그러코 여자란 본시도 거름거리 아침아침 까지도 다 까다로운 법이 잊서서 그로 하여금 여자로서의 교선(敎善)을 세워왔다. 그러나 결혼(結婚)만하면 여자는 대개 간이 커지는 법인가 때로는 이런 뭉살마진 거동(舉動)도 볼 수 있스니 진정 한심한 일이다./ (三) 여자에 있어서 신경질이란 것은 소(笑)의 도(度?)를 훨씬 도두는 수도 있고 반면으로는 아주 깎겨 내리는 수가 만흔데 원래 교책(敎策)이 엮는 사람이니까 그럴테지만 제발 좀 길바닥에서 애기를 때리지 마시오 당신의 그 표정 당신의 그 태도(態度)! 여자란 그다지도? 하고 미웁고 급한 자격(資格)의 주인이 있든가? 상냥한 여인(輿人)의 정체(正體)가 그것 뿐이엇는가?/ (四) 양복쟁이 보선에 빵구가 낫다는 말과 갖치 격(格)은 격(格)을 찾고 류(類)는 류(類)를 쪼쳐야 하는 것인데 양장미인(洋裝美人)이 조선식비빔밥을 먹는 것쯤은 용서한다 치드래도 조심성잇는 색시란 항상 거울로서 제 얼굴을 살필지니 행여나 잇 사이에 고초가루라도 못는다면 그대들의 위신(威信)을 위해서 조음 섭섭한가 말이지.”

(1)만화에는 어머니인듯한 여성이 아이와 바느질 일감을 두고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이 보인다. 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에게 있어서 표정은 곧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 아름다움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 여성은 방심을 하여 낮에 입을 벌리고 자고 있다. 그럼으로써 여자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자는 언제나 자신을 가꾸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2)만화에는 전차를 탄 두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 여성은 다리를 짹벌리고 앉아 있고 또 한 여성은 아이를 업고 있다. 만문의 내용은 신여성이든 구여성이든 모두 여성로서의 예가 있어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여성이든 구여성이든 결혼만 하면 간이 커져서 뱃살스런 행동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3)만화에는 어머니인듯한 한 여성이 아이를 우산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여성의 신경질이 좋을 때도 많지만 나쁠 때도 많다고 하면서, 이런 여성은 가르칠 방법이 없는 여성이지만 그래도 제발 아이들을 길바닥에서 때리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바르지 않은 행동이며, 아름다운 여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4)만화에는 양장한 여성이 양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만문의 내용은, 양복쟁이 버선에 구멍이 났다는 말과 같이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부류에 적합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서양식 양장미인이 조선식 비빔밥을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은 여성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학교(女性學校)」는 당시 여성의 몸가짐과 행동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여성학교’란 제목으로, 당시의 여성풍속도를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걱정 백태(百態)」(1940. 4.)는 5컷의 만문만화로, 당시의 가정과 사회 분위기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베르테르 치마를 못 입게 된다니 이왕이면 그걸로 카-텐을 만들거나 테-블덱개를 만들자니 승강이요. 2. 파-마넛트는 분명 상습명부(常習名簿)에 등록이 되고야 마니 이 숙녀(淑女) 「야미」로 외출을 하라니 세상의 남의 눈치부터 봐야하고. 3. 여섯시부터 열한시까지만 술집 문을 열게 된다니 어쩌게하면 다섯 시간 동안에 만족히 취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놈팽이 친구들도 있고. 4. 강화(強化)된 취체밋헤 꿈작달삭 할 수 업게 되엿스나 그래도 제 버릇 개 안준다는 격으로 만나면 눈치를 홀터 보려는 「야미」장사꾼. 5. 사치를 생명으로 알든 하이칼라 숙녀를 어찌면 번듯하지 하려고 나 같게 하려고 꿈

꾸든 것도 인제는 0기에 구0000000000가 되고 마리라.”



만화 1은 남편이 사치와 허영의 상징물인 베르테르 치마를 못 입게 하고 그것으로 커튼을 만들거나 테이블 덮개를 만들자고 하니, 아내는 그 치마를 못 입는다며 울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정에서 사치스럽고 허영기있는 아내의 걱정을 그리고 있다.

만화 2는 당시 여성들 사이에 유행한 파마가 단속에 걸리게 되니 한 여성이 뒷문으로 나가려고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만화 3은 할일없는 남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녁 여섯시부터 열한시까지만 술집 문을 열게 되니 어떻게 하면 다섯 시간 동안에 만족히 취할 수 있는가를 걱정한다는 내용이다.

만화 4는 「야미」(뒷거래) 장사꾼이 당국의 강화된 단속 때문에 꿈쩍할

수 없게 되었어나 그래도 제 버릇 개 못준다는 격으로 서로 만나면 눈치를 본다는 내용이다. 당시 일제의 단속으로 뒷거래를 못하게 된 장사꾼들의 걱정을 담은 만화이다.

만화 5는 속옷차림의 한 여성이 자고 있고, 그녀의 주위에는 지갑을 얼굴로 한 여성, 모자를 얼굴로 한 여성, 향수를 얼굴로 한 여성, 구두를 얼굴로 한 여성, 여우 머리와 여우목도리를 한 여성, 시계를 얼굴로 하고 목걸이를 차고 있는 서양식 유행을 따르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치를 생명으로 아는 신여성이 자면서도 꿈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위의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뒷부분은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나, 꿈속에서도 신여성이 모던한 패션에 대해 욕망하고 걱정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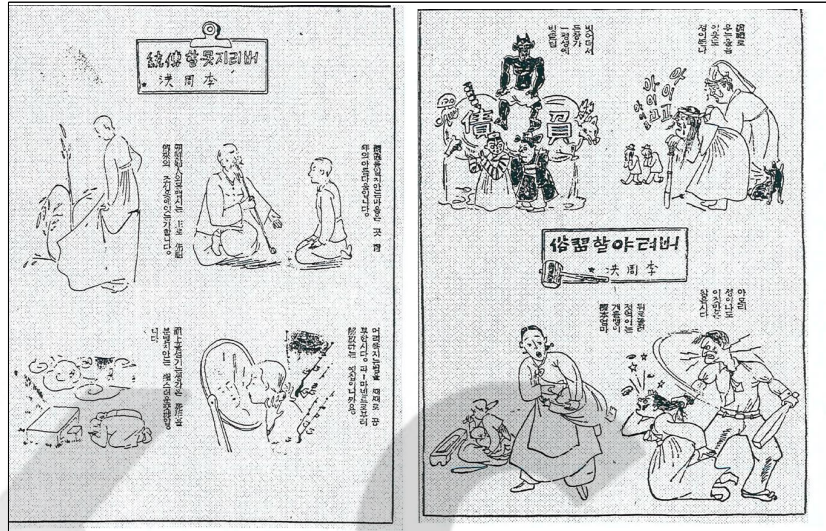
「걱정 백태(百態)」는 당시의 단속이나 규제로 인해,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치를 할 수 없음을, 또는 이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들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지(大地)의 아들」, 「여성학교(女性學校)」, 「걱정백태(百態)」는 당대의 세태풍속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지(大地)의 아들」은 당시 황금광 시대의 풍속도를, 「여성학교(女性學校)」는 당시 당시의 여성풍속도를, 「걱정 백태(百態)」는 당시 가정과 사회의 풍속도를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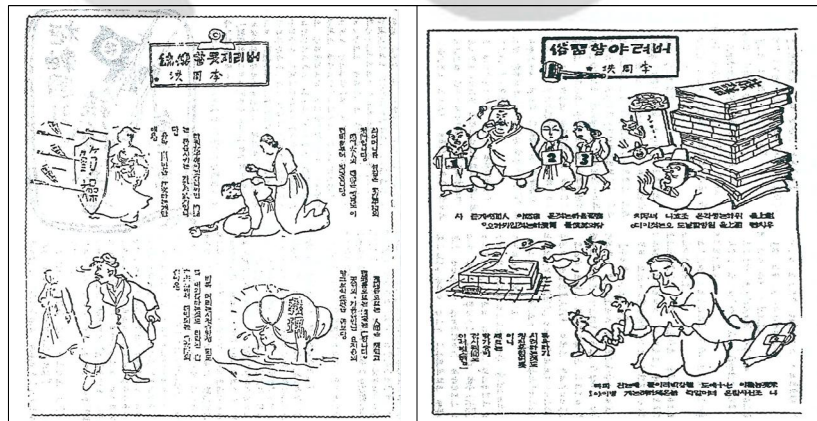
4. 전통과 습속 논의의 실상 -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꼭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1943.6.)

세 만화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고자 한다.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긋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1943.6.)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의 만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버리지 못할 전통: “예의를 일지 안는 마음은 곳 청년의 아름다움입니다./조선 부인의 몸맵시는 주로 선조 전래의 조선옷에 잇는가 합니다./머리 쪽지는 법을 때때로 공부합시다. 파-마넛트로부터 해방하는 옛 집이니까요./조상을 섬기는 생각은 사생을 분별치 안는 성스러운 교섭입니다.”
- * 버려야 할 습속: “0레로 우는 울음 이웃도 정이 뜬다./빚 어디서 든 장가 일평생에 빚쓸림./아모리 성이 나도 이 짓만은 참읍시다./뒤로 돌려 젓 먹이는 계름뱅이 0본 얹마.”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의 만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버리지 못할 전통: “시어머니 섬김은 0000의 첫째입니다. 00여인의 00은 옛날도 이00로부터 빗낫습니다./0000이 잇습니다만 절조(節操)는 0을 시키는 가장 000입니다. 00 00만은 00하는게 안애요/000 모르는 인간은 죄되고 00를 모르는 00는 망합니다. 천0의 가0을 만난 요지음의 망그00000 0보다./비록 머리는 시0을망정 되도록 내외를 하는 것도 타락된 0000에서 여인되는 000의 길이요”
- * 버려야 할 습속: “조상을 위하는 생각은 조흐나 너무 치우치면 조상을 원망할 날도 오는것이다./0000는 것은 00이 인000즌 사00와 00를 000는 것일까 하오./0000이 칠십에도 000려이들 000 00니 조선 사람은 너머 일러 늙은체하러는게 병이야./ 목욕하기 시러하는 것도 칭찬후 함 버릇이니 00는 발가숭이 검사000 이러000.

「긋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1943.6.)의 만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고쳐야 할 습속: “00을 000아는 현대인이 00이 고등교육을 바뎠다는 00상에서 이런 0을 만히 봅니다. 전통을 바라는 생각은 곧 자기의 000에 00하는 가장 비열한 00입니다./흰옷을 고집00 0은 0000 이외의 아모 것도 아닙니다. 상투0 안00고 버티는거와 0갖고 00입니다./00난오와 먹는 것만을 000생각하는 것은 조은 일 갖치 보이면서도 주착업는 짓입니다. 녀석지도 못한 살림에 친구만 작구 담고 드러와서 안해만 00는 것은 정말 00나 000이외다./밥상을 따로따로 차리는 법은 아모라 0 업시할 일입니다. 00도 00이지만 가장 000야 000이 00는 대단히 안는치 못한 000000기 만습니다.

* 버리지 말 전통: “세월이 변해 가드래도 김장만은 버리지 맙시다. 조선 아가씨의 입이 세계에 알려진 00도 여기 잇거니와 맛따00가 이 위에 더 할 수가 잇겠습니까./000의 0000 숭상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찬란한 00입니다. 여귀 야리고 모든 000 000 성스러운 피의 000 잇습시다./상류사회에서 부인을 깎드시 위해 바치는 풍속은 가장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역세고 00000일사록 이것이 가장 00가는 남아의 00인 것입니다./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마사합의 마음을 엮어 매는 힘은 공동 000 외에 업습니다. 이런 00에서도 00 조선가정에서 버리지 못할 빛나는 전통입니다.

이 세 만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인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문맥으로 추측하거나 만화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버리지 못할, 버리지 말아야 할, 또는 지켜야 할 전통

예의를 지킴. 조선부인의 몸맵시(한복의 맵시). 머리쪽지는 법. 조상과 어른(부모, 시어머니) 섬김. 절조(節操). 참고 인내하는 모습(인내심). 부인 존경. 남녀 간의 내외. 김장을 하는 것. 모여서 윷놀이.

* 버려야 하거나 고쳐야 할 습속

초상집의 곡소리. 빗 얻어 장가가는 것.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 뒤로 돌려 젓먹이기. 지나치게 조상을 섬기는 것. 침을 두는 것. 어른이라고 체면치레 하면서 어른 행세하는 것. 목욕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자꾸 칭찬해서 목욕시키려 하는 것(나쁜 습관). 흰옷만 고집하는 것. 남편이 가난한 살림에 자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이는, 아내를 괴롭히는 행동. 남녀 밥상을 따로 차리는 법.

이러한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쉽지 않다. 오늘날의 관

점을 적용할 수도 없고 당시의 시선으로 살펴본다고 해도, 그것이 일본인의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의 것인지, 그것도 아닌 서구인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버리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전통’과 ‘버리거나 고쳐야 할 풍습(습속)’의 구분도 사실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버리거나 고쳐야 할 풍습(습속)’의 경우, 일제의 총동원체제하의 생활개선캠페인과의 관련성 여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총독부가 중일전쟁 개시후 조선의 대륙병참기지화정책에 의거하여 시국대책조사회(1938. 8.)를 개설하여, 자문사항 답서의 제10의제 ‘반도민족의 체위의 향상 및 생활의 쇄신에 관한 건’의 ‘생활의 쇄신’ 그 1인 ‘시국에 적응하는 생활의 기본양식’에서는 ‘①의식주의 개선을 철저히 하고 민속의 황민화를 기할 것 ②의는 색복(色服), 식은 간단, 주는 청결을 본지로 하고, 비상시 생활의 기본양식을 정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구할 것 ③저축에 힘쓸 것을 기할 것 ④일본식예절을 보급하고 학교의 학생 및 일반으로 하여금 이를 습득 익숙하게 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나,¹⁶⁾ 그리고 1948년 8월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마련한 <전시국민생활체제 확립 기준안>에 의하면, ‘2.생활의 쇄신’에서 ‘①조가;오전 6시 사이렌을 신호로 기상할 것 ②청소 ③라디오체조 ④도보여행 ⑤저축의 여행 ⑦교제의 회식폐지 ⑧연회비 억제 및 연회비 절하 ⑨극도로 굵이 높은 구두, 기괴한 부인 모자 폐지, 극단의 고대 백분 및 연지의 억제 ⑩장발의 억제 ⑪마작의 폐지 ⑫혼례 장례의 개선 ⑬상점가의 일제 폐점:상점가는 오후 10시를 기하여 일제히 폐점할 것’¹⁷⁾에서도 전시하의 일상생활 문

16)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374-376쪽.

17)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2009. 123쪽. 오미일, 총동원체제하 생활개선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식민도시 인천의사회적 공간성과 관련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235-277쪽 참조. 경기도 통첩 <전시국민생활체제 확립에 관한 실시요강>(1940.9.)에 의하면, ‘일상생활 쇄신’은 ‘의복, 음식, 거주, 의례’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의복: ①국민표준복 장려 ②새로 짓지 말고, 화미하고 사치한 것은 입지 말 것 ③장신구 소지를 억제할 것 ④경조에는 통상복에 의례장을 붙

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941년도 총독부가 국민총력운동 사업계획에서 밝힌 ‘국민총훈련’의 ‘생산 신체제의 확립’에서 주창하는 ‘의식주의 신체제화, 관혼상제 기타 일반의례의 신체제화, 위생사상의 보급’¹⁸⁾ 등과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향파의 대일협력적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중에는 총후의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결전하의 살림꾼’으로서 ‘반찬 가짓수를 줄일 것,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밥을 남기지 않도록 할 것, 숟가락은 밥그릇에 부어 마시게 할 것, 바느질은 모아두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할 것, 시장 보다가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삼갈 것 등’을 통해 “시간 절약을 하면 하루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은 나라를 봉사하는 내직(內職)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국가의 일상적 시간관리’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¹⁹⁾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통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쳐야 할 습속’은 일제의 전시국민생활 체제 확립과 생산 신체제 확립에 의거한 내용들에 일정 부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만화의 내용은 『家庭の友』 1939년 9월호(통권 24호)에 실린 「고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엽서회신)과 연관이 있는

임으로써 예복 폐지, 음식: ①외식 금지 여행 ②근로자의 도시락 지참 여행 ③ 내객 향응은 1첩 1채로 할 것 ④1일 1식 대용식(여관에서도) ⑤연회의 억제와 회비의 절하 ⑥취사는 주부가 맡아 하고 사람을 쓰지 말 것, 거주: ①환경미화를 꾀하여 정원을 만들고 채소와 화초 심기를 장려 ②택지 공지의 이용 ③라디오 설치 이용 ④주택조합의 설치 장려, 의례: ①의례준칙에 따를 것 ②장례에는 자동차를 제한하고 영구차의 뒤를 따르는 자동차와 인력거는 최소한도로 제한할 것 ③화륜의 폐지 ④의례전보 치는 것을 억제할 것 ⑤견송출영(遣送出迎)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폐지”(오미일 논문, 257쪽)

18)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2009. 157쪽.

19) 이은경, 표준 가사 시간표, 『신시대』, 1944.10. 윤대석, 1940년대 전반기 황국 신민화 운동과 국가의 시간.신체 관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권, 한국현대문학회, 2003, 윤대석, 식민지에서의 국민화,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149쪽에서 재인용.

듯이 보인다. 이 글들은 아마도 잡지사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엽서를 보내 회신받은 내용을 옮겨 실은 듯하다. 이 글들이 향파의 만문만화의 직접적인 저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이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파 자신이 작품을 많이 발표한 잡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이 만화의 내용이 「곳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엽서회신)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회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빨리 버리거나 고쳐야 할 습속과 버리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전통에 관한 것인데, 김억(경성중앙방송국), 이효석(평양의전교수), 이광수(소설가), 안석영(조선영화회사), 고봉종(이화여전교수), 송금선(동덕고녀), 홍승원(가정주부), 장정심(여자00회연합회), 이기영(소설가), 안중화(영화감독), 신봉조(이화고녀교장), 차상찬(역사가), 이원보(총독부사회교육과장), 이선희(여류작가), 손정규(00고녀교유) 등 15명이 응답한 내용이다. 영인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일부 제외하고, 이 글들의 내용을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쳐야 할 습속(習俗): “분에 넘치는 관혼상제 간소화. 짜고 매운 음식 조미. 소복(흰옷). 주택의 흙벽. 상에 밥과 반찬을 많이 놓는 것(먹을 만큼만). 농촌부인이 젖을 내놓고 다니거나 등에 업은 아이에게 젖을 길게 늘어 젖을 먹이는 것.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 조혼. 첩을 두는 것. 상가의 곡하는 것. 행랑을 두는 것. 부엌을 밝고 일하기 편하도록 할 것. 변소를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할 것. 음식을 좀더 손쉽고 대중적으로 하여 유아를 위한 음식 연구 필요. 경로(敬老). 애유(愛幼). 의복의 질과 색 합리적으로 할 것.公德심(公德心) 양성. 부인의 사회훈련. 늙었다는 관념 버림. 노름하는 것. 고무신. 과도한 잔치 또는 음식 돌림. 고사류의 행사. 아들 선호사상(사위를 양자로 삼고 상속권 주기). 하류가정의 부인 존경 안하는 것. 흰 쌀밥 대신 잡곡밥 먹기 또는 다른 음식. 두루마기 없애고 상하복 개량하며 여자도 의복 개량. 친한 사

이에 예의범절 지키기. 혼사 상사에 음식 간소화와 정숙. 백의를 색의
로 개량.”

* 버리지 말아야 전통(傳統): “음식 복식 주거 예식. 새해의 각종진미. 맵
시있는 의복 음식. 예의. 혈족과 사제간에 혼인 안하는 것. 어른(부모)
공경. 인내심. 여자의 정조 지키는 것. 장유유서의 정. 의리. 절조(節
操). 조선여자의 의상. 옷놀이 바둑 장기. 남녀 내외하는 법. 김장. 부
인 존경(상류가정). 조상 제사. 여자의 부덕과 남자의 위품.”

이상을 살펴볼 때,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이 향파의 만문만화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傳
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고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1943.6.) 등 3편에 담겨있다. 향파는 이 설문 내용을 참조하
여, 대중매체인 만화를 통해 조선의 지켜야 할 전통과 고쳐야 할 습속을
대중에게 알기쉽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지만, ‘버려야 할 습속’이나 ‘고쳐
야 할 습속’은 일제의 전시국민생활 체제 확립이나 생산 신체제에 확립
에 의거한 내용들에 일정 부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향파 이주홍은 1940년 2월 『家庭の友』에 만문만화 「대지(大地)의 아
들」을 시작으로, 1944년 1월 『半島の光』에 만문만화 「적(敵)의 흑심(黑
心) 폭로전(暴露展)」을 발표하기까지 40여회에 걸쳐 많은 작품을 발표하
였지만 대부분이 만화 작품이다. 이 글은 이주홍이 『家庭の友』와 『半島
の光』 두 잡지에 발표한 만화 작품 중에서 만문만화를 최초로 소개하고,
그 만문만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이
주홍의 대일협력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만문

만화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보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두 잡지에 실린 만문만화들은 지금까지 목록만 제시되었을 뿐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제 말기 이주홍의 현실인식과 그가 어떻게 대일협력의 길로 나아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이주홍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家庭之友』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12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월간으로 펴낸 기관지로서, 1941년 3월까지 통권 41호가 발간되었다. 『半島の光』의 전신이다. 일본인 ‘소구홍’(이후 청수정일)이라는 자가 편집 겸 발행인으로 되어있으며 대화상회인쇄소(이후 매일신보사인쇄부)에서 인쇄하였다. 한글로 주로 인쇄되었으나 권두언 등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잡지의 내용은 농촌 가정생활에 필요한 새소식이나 새지식이 중심이었으나, 일반 상식이나 농촌부인의 육아, 요리 등 교양관련 강좌, 흥미있는 이야기거리,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만화 등 다양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1930년대 말기에 오면 대일협력적인 시국적 내용이 점차 많아진다. 적지않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

『半島の光』은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1941년 4월부터, 『家庭の友』가 제호를 바꾸어 월간으로 간행된 잡지이다. 그러므로 『家庭の友』의 후신이다. 이 잡지는 일문판인 ‘화문판’과 한글판인 ‘선문판’으로 나누어 발간되었는데, 편집 겸 발행인은 청수정일이고 매일신보사 인쇄부에서 인쇄하였다. 한글판은 국판 크기인 『家庭の友』와 달리 4·6배판 크기로 펴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문』과 함께 광복 전까지 계속 발간될 정도로, 일제 말기에 영향력이나 비중이 매우 컸던 잡지로, 10만부나 팔렸을 정도로 우리나라 농촌 전역에 배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시국적인 내용의 전형적인 친일 종합지로서, 그 기사 내용은 일제의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의 승리와 국민총력운동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부추기고, 총후 국민과 농민의 수탈을 위한 선전·선동 등이 대부분이었다.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소설, 시, 아동문학, 수필, 그리고 야담과 만

화 등을 발표하였다. 앞의 『家庭の友』의 필진 대부분이 이 잡지에 참여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주홍도 이 두 잡지에 40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만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글에서는 만화 중에서 넓은 의미에서 당대의 세태풍속을 다루고 있는 「대지(大地)의 아들」(1940.2.), 「여성학교(女性學校)」(1940.5.), 「걱정백태(百態)」(1940.10.) 그리고 「버리지 못할 전통(伝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伝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곳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伝統)」(1943.6.) 등 6편의 만문만화만을 검토하였다.

둘째, 「대지(大地)의 아들」(1940.2.), 「여성학교(女性學校)」(1940.5.), 「걱정백태(百態)」(1940.10.)는 당대의 세태풍속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지(大地)의 아들」은 당시 황금광 시대의 풍속도를 풍자하면서 대지의 아들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학교(女性學校)」는 여성의 몸가짐과 행동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여성학교’란 제목으로, 당시의 여성풍속도를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걱정 백태(百態)」는 당시의 가정과 사회 구성원이 걱정하는 내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버리지 못할 전통(伝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伝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곳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伝統)」(1943.6.) 등은 대중매체인 만화를 통해 조선의 지켜야 할 전통과 고쳐야 할 습속을 대중에게 알기쉽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가가 만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과 습속의 구체적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쉽지 않지만, ‘버려야 할 습속’이나 ‘고쳐야 할 습속’은 일제의 전시국민생활 체제 확립이나 생산신체제에 확립에 의거한 내용들에 일정 부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만문만화는 『家庭の友』 1939년 9월호(통권 24호)에 실린 「곳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伝統)」(엽서회신)에 실린 내용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 이 글들이 향파의 만문만화의 직접적인 저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향파가 이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주홍의 대일협력의 과정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이설 춘향전」(1940. 5.),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적성추방(敵性追放)」(1943. 11.) 등 나머지 3편의 만문만화와 「즐거운 박(朴)침지」와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 등 2편의 연재만화를 연구한 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525-557면.
-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2009.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김인환·정호응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민음사, 2006.
- 류종렬, 일제 강점기의 금 모티프 소설 연구(1), 『가족사 연대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257-278쪽.
- 류종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 1 권, 세종출판사, 2006.
-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4.
-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학회, 2013.12. 477-512쪽.
-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2)」, 『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2014, 179-205쪽.
-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만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8집, 한중인문학회, 2015, 127-151쪽.
- 류종렬, 「이주홍 작품의 화전민과 메아리 모티프의 변모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69집, 한국문학회, 2016, 229-259쪽.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시공사, 1999.
- 시미즈이사오 편, 『풍자만화로 보는 근대일본』, 소명출판, 2011.
- 신희교, 『일제말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역사문제연구소 편,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비평사, 1998.
- 윤대석, 1940년대 전반기 황국 신민화 운동과 국가의 시간·신체 관리,

-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권, 한국현대문학회, 2003.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도서출판 역락, 2006.
-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선인, 2008.
- 임종국 지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전봉관, 「1930년대 금광 풍경과 황금광시대의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7호, 한국현대문학회, 1999, 79-121쪽.
- 전봉관, 「황금광시대 지식인의 초상: 채만식의 금광행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권 2호, 2002, 76-105쪽.
-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5.
-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사』 2, 문학과 지성사, 2012.
- 최열, 『한국만화의 역사』, 열화당, 1995.
- 최원규 엮음,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77.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 한재규, 『한국만화원형사』, 이다미디어, 2001.

<Abstract>

A Study on Lee, chowhong's Manmun
Manhwa in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1)

- Focused on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and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

Rhyu, Chong-Ryeol

Hyangpa, Lee, chowhong began his career with a cartoon of 'The Son of the Earth(대지(大地)의 아들)',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in February, 1940, and wrote over 40 works till 'Revealing Enemy's Evil Thoughts(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in January, 1944. However, most of his works are carto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what Manmun Manhwa is among the cartoons in the two magazines of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and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and review its meaning. Also, this study reviewed the matter of Lee, chowhong's historical awareness that he cooperated with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irst,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is a 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the Chosun Financial Society Association from December, 1936 to March, 1941, the issue of 41, and then changed its name into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and kept published from April, 1941 till the Independence day. The editors and publishers of the two magazines are Soguhong and Chungsujeongil, Japanese

and printed by Daehwa Printing and the printing part of Mailsinbo(Daily Newspaper). They were printed in Korean, which was really rare, but the prefaces were written in Japanese. Especially,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was published in both versions of Korean and Japanese. The contents of these magazines were the information for the home in rural area, but since the end of 1930, it became a typical Japan-friendly magazine focused on the cooperation with Japan. Not a few writers released their work in the magazine. Lee, chowhong also released 40 works in these two magazines and most of them were cartoons. This study reviewed 6 cartoons of Manmun Manhwa.

Second, 'The Son of the Earth(대지(大地)의 아들)」(1940.2.), 'Women's School(여성학교(女性學校))」(1940.5.), 'Various Worries(걱정백태(百態))」(1940.10.) dealt with the customs of the day. 'The Son of the Earth(대지(大地)의 아들)」 satirizes the gilded age and advises to live sincerely as the son of the earth. 'Women's School(여성학교(女性學校))」 reveals the customs among women of the day and teaches how to behave as women. 'Various Worries(걱정백태(百態))」 shows the worries of the family and social members of the day.

Third, 'Tradition to be with, Customs not to be with(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1943.4.), and 'Customs to make right, Tradition to conserve(긋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1943.6.) seem to have tried to teach the public the Chosun's tradition to keep and customs to make right in an easy means of cartoon. The contents of the tradition and customs seem to have been common in those days.

Key Words :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Lee, chowhong's Manmun
Manhwa in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Cooperation with Japan

■ 논문접수 : 2016년 11월 11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

K C I